



2. 20분 만에 표가 다 팔려 버렸대요

학습목표 '-아/어/여 버리다'를 사용하여 행위의 완료를 표현할 수 있다.

학습내용 -아/어/여 버리다



생각해 봅시다



- 많은 숙제를 한꺼번에 한 적이 있어요?
- 숙제를 끝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본문

엄마 여보, 지나 생일 선물로 줄 콘서트 표는 예매했어요? 신문을 보니까 순식간에 매진되었다던데요.

아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어제 표를 예매하려고 했는데 벌써 다 팔리고 없더라고요.

엄마 (놀라며) 네? 지나가 무척 기대할 텐데 어떡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한테 줄 선물을 산다고 이번 달 용돈도 다 써 버렸어요.

아빠 인터넷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20분 만에 표가 다 팔려 버렸대요.

엄마 이번 콘서트에 케이팝 가수들이 총출동해서 그런가 봐요. 지호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눈치인데 애들 둘 다 실망이 크겠어요. 수소문이라도 해서 좀 알아볼까요?

아빠 음..... 추가 공연을 할지도 모른다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엄마 추가 공연이라니요?

아빠 공연을 준비한 주최측에서도 이번 공연에 이렇게 사람이 몰릴 줄 몰랐대요. 그래서 공연을 몇 회 더 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엄마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도입 질문

- 1) 많은 숙제를 한꺼번에 한 적이 있어요?
- 2) 숙제를 끝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 3) 할 일이 아주 많았고 그 일은 하기 싫은 적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한꺼번에 끝낸 적이 있습니까?
- 4) 절대로 생기면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 5)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본문 학습 순서

- 1) 도입 질문을 한다.
- 2) 본문을 듣기 전, 도입 그림을 보고 본문 내용을 유추해 본다.
- 3) 자막을 보지 않고 듣는다.
- 4) **이해질문 1(포괄적인 내용파악)**을 한다.
-엄마와 아빠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답: 지나의 생일 선물)
-아빠는 콘서트 표를 예매했습니까?
(답: 아니요.)
-아빠는 왜 콘서트 표를 예매하지 못했습니까?
(답: 다 팔리고 없어서)
-콘서트 표는 언제 다 팔렸습니까?
(답: 20분 만에)
-엄마와 아빠는 콘서트 표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답: 추가 콘서트를 할지 모르니 더 기다려 볼 것이다.)
- 5) 질문 4)의 답을 염두에 두고 다시 듣는다.
- 6) 4)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해 질문 2(세부적인 내용파악)**을 한다.
-콘서트 표는 왜 다 팔렸습니까?
(답: 케이팝 가수들이 총출동해서)
-공연 측이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이번 공연에 이렇게 사람이 몰릴 줄 몰랐다.)



내용 이해 질문

- (1) 아버지는 지나의 선물로 콘서트 표를 살 수 있었다.(O, X)
답 : (X)표가 순식간에 매진되어서 살 수 없었다.
- (2) 이번 공연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다. (O, X)
답 : (O)한류 가수들이 총출동 하는 콘서트라서 인기가 무척 많다.

- 7) 새 어휘를 설명한다.
 8) 한 문장씩 듣고 따라 하게 한다.
 9) 학습자가 본문을 읽는다. (혼자 또는 짝지어)
 10) 상황에 맞게 감정을 실어 읽는다.



어휘

순식간	一瞬间	은근히	暗暗地
매진	卖尽, 售完	눈치	眼神
용돈	零花钱	수소문	打听, 搜索
-자마자	一.....就 (马上)	추가	追加
~만에	在.....之内 (在某个时间之内)	주최측	主策方
총출동	全体出动	몰리다	聚集

만 : (주로 '만에', '만이다' 꼴로 쓰여)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말

- 십오 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서울이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 이게 얼마 만이에요! 마지막으로 만난 게 삼 년 전인가요?
- 그에게는 고국을 떠난 지 20년 만의 귀국이였다.
- 친구는 우리 집에 도착한 지 두 시간 만에 다시 떠났다.

은근히 : 행동 따위가 함부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 한 마디가 은근히 신경 쓰였다.
- 동료 선수가 다쳐서 당분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후보 선수들은 이를 은근히 반겼다.
- 사람들은 입을 옷을 가지고 은근히 자랑하는 것 같았다

눈치: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을 미루어 알아내는 것,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

- 주인이 눈치가 빨라서 손님이 원하는 바를 재빨리 알아챈다.
- 옛그제 애인과 헤어진 친구에게 연애담을 늘어놓다니 어지간히 눈치가 없다.
- (심화)
- 눈치가 없다 : 그는 다른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을 혼자만 눈치 못 채고 있었다.
- 눈치를 주다 : 빨리 나가라고 눈치를 주는데도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 -는 눈치이다 : 오늘은 무슨 좋은 약속이라도 있는 눈치이다.

몰리다: 여럿이 한곳으로 모여들다, 무엇이 한꺼번에 많이 밀리다.

- 백화점에서 세일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백화점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 여름에 야영을 하면 등불에 온갖 벌레들이 몰리곤 한다.
- (심화)

-자마자 : (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에 붙어)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지자 잇따라 곧 다음 절의 사건이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음식이 상해서 먹자마자 토해 버렸다.
- 집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 친구는 나를 보자마자 화부터 냈다.
- 나는 목이 말라서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셨다.



문법학습

-아/어/여 버리다

어떤 행위를 완전히 끝내서 실제로 버리거나 없애거나 실제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료된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이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용돈을 다 써 버렸어요'는 '용돈을 다 썼다'는 행위의 완료와 더불어 용돈이 얼마 남지 않아 아쉽다는 말하는 이의 감정을 함께 표현합니다. '숙제를 끝내 버렸다'에서는 숙제를 완료했다는 의미와 함께 숙제에 대한 부담이 끝나서 개운하다는 말하는 이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어/여 버리다'는 행위의 완료와 더불어 그 완료된 행위에 대한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 ① 우리는 남은 음식을 다 먹어 버렸다.
- ② 동생은 눈물을 참다가 결국 울어 버렸다.
- ③ 숙제를 마침내 끝내 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다.
- ④ 내가 도착했을 때 버스는 이미 출발해 버리고 없었다.

'-아/어/여 버리다'는 말하는 이가 어떤 행위가 완전히 끝나 시원하거나 아쉬운 감정을 드러낸다.

문장 만들기

'-아/어/여 버리다'를 사용하여 문장 완성하기

- _____ 먹어 버렸어요.
 _____ 가 버렸어요.
 _____ 사 버렸어요.
 _____ 만들어 버렸어요.
 _____ 울어 버렸어요.
 _____ 와 버렸어요.
 _____ 말해 버렸어요.

대화 연습하기

1. **지나:** 오빠, 냉장고 안에 있던 케이크 못 봤어?
지호: 배고파서 아까 내가 다 먹어 버렸어.
2. **유리:** 지나야, 너 아까 왜 수지랑 다툰 거야?
지나: (약간 격앙) 내가 분명히 비밀이라고 했는데 수지가 다른 친구에게 말해 버렸잖아.
3. **민:** 시험 공부는 다 했어?
지호: 몰라. 어제 좀 하다가 그만 자 버렸는데 큰일이야.
4. **어머니:** 여보.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아버지: 간발의 차이로 비행기를 놓쳐 버려서 다음 걸 기다리고 있어



심화학습

1. 앞서 설명한 대로 어떤 행위를 완전히 끝낸 결과를 말하며, 화자의 심리를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심리 표현 없이 중립적으로 행위의 완료를 표현하기도 한다.

- 커피를 쏟아 버렸다.
- 계단에서 넘어져 버렸다.
- 친구가 아무 말도 없이 가 버렸다.

2. 행위가 완료되어 화자의 부담을 덜었다는 느낌을 준다.

- 숙제를 끝내 버리고 나니까 개운하다.
- 방이 좁아서 텔레비전을 치워 버렸다.

3. 행위가 완료되어 아쉬움이 남는다는 느낌을 준다.

- 시간이 빨리 가 버려서 친구들과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동전까지 써 버리고 나니 거지나 다름없었다.

4. '잊어버리다'와 '잃어버리다'는 하나의 단어이다.

- 식당을 예약해야 하는데 깜빡 잊어버렸다.
- 지하철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다.

‘아/어/여 버리다’는 어떤 행위를 완전히 끝내고 그 결과 말하는 이의 심리 (시원하다, 아쉽다)를 반영한다.

1. 시원하다.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다 했다. 그 결과 시원하다.

2. 아쉽다, 안타깝다

그 일이 생기면 안 좋은데 일이 일어났다.

‘아/어/여 버리다’와 유사한 표현으로 ‘-고 말다’가 있다.

‘아/어/여 버리다’에서 화자의 아쉽고 안타까운 심리가 반영된 문장은 종종 ‘고 말다’와 바꿔 써도 의미가 통할 때가 있다.

예) 졸다가 그만 커피를 옷에 쏟아 버렸어요.

졸다가 그만 커피를 옷에 쏟고 말았어요.



1.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십시오.

순식간에 은근히 눈치 수소문 물렸다

- 1) 형과 다툼 후 형을 볼 때마다 눈치 을/를 살피게 된다.
- 2) 일자리를 수소문 해 봤지만 마땅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 3) 이번 K-pop 대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참가자가 물렸다
- 4) 유명한 가수가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공항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 5) 동생은 생일 선물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다.

해설 :

- 1) 형과 다툼 후 형을 볼 때마다 눈치를 살피게 된다.
- 2) 일자리를 수소문 해 봤지만 마땅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 마땅하다: classic
- 3) 이번 K-pop 대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참가자가 물렸다..
* 남녀노소: classic
- 4) 유명한 가수가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공항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 5) 동생은 생일 선물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다.

2. <보기>와 같이 문장을 쓰십시오.

가다 √자다 하다 버리다

이틀 밤을 새고 나서 열 시간을 자 버렸어요/자버렸다

- 1) 유리가 너를 계속 기다리다가 조금 전에 가 버렸어

해설 : 유리가 기다리다가 조금 전에 간 상황이 완료되었다.

- 2) 미루던 숙제를 이제서야 다 해 버렸다/해 버렸어요
/해 버렸습니다/해 버렸어

해설 : 지금까지 끝내지 못했던 숙제를 완료했다.

- 3) 꽃이 시들어서 쓰레기통에 버려 버렸다/버려 버렸어요
/버려 버렸습니다/버려 버렸어

해설 : 동사 '버리다'와 '-어 버리다'가 결합하여 '버려 버리다' 형태가 된다.

1. 어휘 연습

- 1) '눈치'와 호응하는 서술어를 설명한다.
예) 눈치를 살피다, 보다, 주다,
눈치가 있다/없다/빠르다/생기다/느다
2) 수소문하다, 수소문 끝에
3) 물렸다, 물려들었다
4) '순식간에'가 사용된 문장의 예를 설명한다.
5) '은근'이 들어간 다양한 예를 제시한다.
예) 은근과 끈기
은근하게 기대하다.
은근히 눈치를 보내다

2. 문법 연습

- 문법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
-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후행절을 학습자들이 유추할 수 있게 질문한다.
다.
- 예) 이틀 밤을 새고 난 후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은 이틀 밤을 새면 무엇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3. 남자의 말 다음에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지호: 민아, 용돈을 다 썼는데 만 원만 빌려 줘.

민: _____

- ① 돈을 다 써 버릴 거라면서?
- ② 다음 주에 만 원 갚아 줄게.
- ③ **나도 지금 가진 돈이 없는데 어쩌지?**

해설 : 지호가 민에게 돈을 빌리려고 한다.

* 갚다: (영어 번역)

2) 엄마: 지나야.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하랬지?

지나: _____

- ① 네. 늦을 거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 ② 알겠어요. 다음부터 전화하라고 할게요.
- ③ **죄송해요. 영화 보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해설 : 지나가 연락 없이 늦게 와서 엄마에게 꾸중을 듣고 있다. '전화하랬지?'는 '전화하라고 했지?'라는 의미이다.

3) 지나: 여기 있던 케이크 어디 갔어?

지호: _____

- ① **얼마 없어서 다 먹어 버렸는데.**
- ② 케이크를 산 곳에서 찾아봐야겠다.
- ③ 생신 케이크 사느라고 용돈을 다 써 버렸어.

해설 : 지나는 지호에게 없어진 케이크에 대해서 묻고 있다.

3. 듣기 연습

- 문법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
- 교사는 듣기 문제에 있는 질문을 학습자들에게 하고 학습자들은 자신만의 응답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입질문을 할 수 있다.
- 예) 친구가 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과제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을 미루는 편입니까? 지금 오랫동안 미뤄온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완료할 수 있을지, 완료 후에는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 보고 글을 써 봅시다. 단, 아래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접 경험한 일을 써야 한다.
- ‘-아/어/여 버리다’를 사용해야 한다.
- 문어체(‘-다, ㄴ/는다’)로 써야 한다.
- 400~600자 정도로 써야 한다.

예시답변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하기 싫은 일은 미루는 편이다. 그래서 늘 숙제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제출하곤 한다.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차근차근 정리하라고 한 과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숙제를 계속 미루다가 지난 주말에 친구와의 약속도 취소하고 주말 내내 했는데 결국 다 못하고 제출해 버렸다.
<이하 생략>

작문 지도

- 지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직접 경험한 일, 문형, 문체, 길이)
- 글의 구성이 짜임새 있어야 한다. (처음-중간-끝)
- 단락이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
- 학습 수준에 맞는 문형과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